

한영옥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수영, 「풀」의 효과적 교수 방법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배민수

김수영, 「풀」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 연구

한 영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배민수

인 준 서

배민수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4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 문 개 요

이 연구는 김수영 「풀」의 미학적 측면을 중심으로 작품의 효과적인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수영은 20여년간의 시작활동을 거치면서 치열한 창작정신을 통해 한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시인이다. 이러한 그의 마지막 작품인 「풀」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는 평이한 시어와 단순한 구조 속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기존의 「풀」에 대한 평가로 대체로 그가 참여시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교수-학습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 해석은 자칫 도식적인 해석으로 교수-학습 내용이 경직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좀더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따라서 기존의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은 물론 구조론적 관점에 따라 이 작품을 분석해보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우선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 「풀」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 그리고 학습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목표가 지나치게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용어가 애매하게 사용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해석상에서도 작품 의미의 다양성보다는 도식적인 해석에 머물러 있어 자칫 학습자에게 기존의 해석을 주입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될 소지가 있었다. 학습활동 역시 도식화된 해석에 따라 학습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7차 국어교육에서 중요시 하는 학습자의 내면화 과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졌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함께 살펴 보았다. 우선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작품 해석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론적 관점을 살펴보았다. 「풀」의 교수-학습 된 이래 현재까지 모방론적 관점에 따라 여전히 ‘풀= 민중’이라는 도식화된 해석으로 학습되어져 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도식화된 해석에서 벗어나고자 작품 속에 드러난 현실 반영 뿐 아니라 이러한 현실이 어떻게 작품에 투영됐는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작품의 경우, 이 시는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하여 4.19 이후 시대상과 함께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풀’이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시어의 구조, 리듬상의 특징, 수사법의 특징 그리고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경우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의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어의 구조와 의인법의 사용 그리고 반복에 의한 리듬과 주술성 형성은 이 작품의 의미형성에 긴밀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리듬은 역동하는 ‘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람보다 빨리 눕고 일어난다’는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주술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에서 수사법상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법의 사용은 풀이 주체적인 존재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분석을 토대로 「풀」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 해 보았다. 우선 구조론적 관점과 모방론적 관점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할 수 있는 모형과 함께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좀더 효과적인 「풀」의 교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 목 차 >

논 문 개 요

I. 서론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9

II. 문학교과서에 실린 「풀」의 교수-학습 현황

1. 학습 목표와 작품 소개 측면 11
2. 학습 내용 측면 14
3. 학습 활동 측면 17

III. 「풀」의 학습 내용 모색

1. 모방론적 관점의 경우 20
 - 1) 「풀」의 역사적 배경 20
 - 2) 모방론적 관점의 작품 분석 21
2. 구조론적 관점의 경우 24
 - 1) 시어의 구조적 특징 24
 - 2) 리듬, 수사법의 특징 29
 - 3)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 35

IV. 「풀」의 교수-학습 모형 모색

1.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 검토 41
2. 「풀」의 교수-학습 모형 구안 및 적용 46

V. 결론 59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목적

김수영은 1946년 「廟庭의 노래」¹⁾를 시작으로 해서 1968년 작고할 때까지 총 173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 중 「풀」²⁾은 마지막 작품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은 김수영의 갑작스런 죽음과 함께 그의 시적 작업이 정지된 것에 대한 아쉬움뿐만 아니라 단순한 구조와 평이한 시어 속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 시가 본격적으로 연구됐던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민중과 민중시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풀」을 모방론적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그 중 ‘풀’이 상징하는 의미를 ‘민초’ 즉 ‘민중’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견해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역시 이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1) 1946년 『예술부락』 창간호에 실림.

김수영의 공식적인 문학적 출발은 1945년 『예술부락』에 실린 「廟庭의 노래」이다. 연보에 의하면 그는 해방 직전 만주에서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해방과 함께 서울로 돌아와 박인환을 비롯한 당대 모더니스트들과 사귀게 된다. 그는 이때 연극에서 문학으로 전향하였다고 하면서 “나는 演鉉에게 한 20편 가까운 시편을 주었고 그것이 대체로 소위 모던한 작품이었는데, 하필이면 고색창연한 「廟庭의 노래」가 뿔뿔히 실려졌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점을 볼 때 이 작품이 김수영 자신의 첫 발표작이 된 것에 대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강연호, 「김수영 시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5), p.171.

2) 1968년 5월 29일 『현대문학』에 발표됨(김수영은 1968년 6월 16일에 작고함).

3) 18종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풀」이 수록된 교과서는 10종으로 모두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 또 교과서 본문에 이 시를 수록하고 있는 금성, 민중, 한국, 지학 출판사의 경우 당시 사회상과 관련해서 이 시를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논의의 경우 “ 참여시 혹은 현실 참여적 성격을 지닌 시로 규정되면서, 이러한 규정이 낳는 해석의 도식성과 오류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⁴⁾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학이 지닌 의미의 다양성에 관하여 논의할 때, “같은 백합꽃도 각기 다른 향기를 내며, 같은 사람이 같은 강물을 두 번 뺨을 수 없다”⁵⁾라고 말하고 한다. 즉,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의 의식은 물론, 정서를 비롯해서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인식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작품에 대한 해석은 독자의 체험에 의해서 이뤄지는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며, 시대, 장소, 독자에 따라 달라 질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풀」과 같이 다양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는 작품의 경우 더욱이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 현장에서의 「풀」의 교수-학습방법은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의 다양한 의미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연결시켜 해석되어진 설명을 그대로 인지하도록 하는 수업형태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풀」의 교수-학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작품의 의미 산출이 작품의 미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당시 시대상황과 연결시켜 도식화된 지식을 학습시키는데 머물렀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기존의 모방론적 관점의 시 해석을 살펴보고 체계적인 작품 해석을 위해 구조론적 관점을 통해 작품의 미학적

4) 이남호,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현대문학, 2001) p.193.

5) 권택영, 미로 속에 갇힌 언어-미국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반사실주의 현상, 『민족지성』 no.4, (1986), p.88.

구조를 밝히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미학적 구조가 작품의 의미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이 참여시로 평가되면서 작품의 자체의 뛰어난 미학적 구조보다는 당시 사회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이 주류로 받아들여져 현행 7차문학교과서까지도 이 관점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을 살펴볼 때 문학의 미학적 측면에서 역시 충분한 학습할 가치를 지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치게 이 점이 도외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이러한 다양한 해석의 시도와 미적 구조에 대한 탐구가 기존에 참여시⁶⁾라고 분류되고 평가되었던 여타 다른 작품으로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2. 연구사

김수영의 첫 작품집은 1959년에 나온 『달나라의 장난』이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역동적인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아 민중문학의 돌풍을 타고 「풀」의 독자층이 확대”⁷⁾됨으로써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시선집 『거대한 뿌리』(74)로부터 시작해서 산문선집 『시여 침을 뱉어라』(75), 시선집 『달의 여행을 밟을 지라도』(76), 산문선집 『퓨리턴의 肖像』(76)까지 차례로 간행되면서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독자층의 확

6)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참여시로 규정지어진 작품은 총 9작품으로 「머슴 대길이」(고은), 「산에 언덕에」(신동엽),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풀」(김수영), 「푸른하늘」(김수영), 「농무」(신경림), 「목계장터」(신경림), 「벼」(이성부),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7) 권희돈, 시의 빈자리-김수영의 「풀」을 예로 하여, 『청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 no.9, (1990), p.15.

대 뿐 아니라 김수영 문학에 대한 연구로까지 확산되었다.⁸⁾ 이렇게 김수영 문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풀」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기로 한다.

이어서 「풀」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적 관점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방론적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민중시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견해는 풀과 바람이 상징하는 의미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논의들이다

우선 풀을 민중으로 보고자 한 민중시학적 관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현승, 백낙청, 송명희, 김춘수·박진환, 이남호 등이 있다.

이중 김현승은 “민중의 기대를 노래한 「풀」을 남김으로써 그의 소시민적 기질의 저쪽을 잠깐 보여 준다”⁹⁾라고 밝혔다. 이것은 「풀」이 민중의 기대를 담은 시라고 해석한 것으로서, 비록 본격적인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은 아니지만 「풀」을 민중시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현승 역시 “바람은 불의와 부당한 탄압으로 풀은 무력에 쓰러지지 않는 자유 이행의 의지로 파악한다”¹⁰⁾라고 논했는데, 이 논의에서는 바람이 풀을 탄압하는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압에 맞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풀의 생명력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염무웅은 “민중시학을 수립하는데 실패했으나, 「풀」은 자신의 시대적 한

8) 1970년대(석사학위 논문 5편), 1980년대(석사학위 논문 40편, 박사학위 논문 2편), 1990년대, 2000년대(박사학위 논문: 19편, 석사학위 논문: 124편)에 달한다.

9) 김 현, 김수영 혹은 소시민의 자기확인과의 향의,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1973), p.253.

10) 김현승, 『한국현대시해석』 (서울: 관동출판사, 1975), p.247.

계를 넘어서는 일에 적극 나섰으리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¹¹⁾고 하여 「풀」을 민중시학으로서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석 과정이 아니라 논의 자체가 막연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백낙청은 “이 시에는 마치 동요와도 같은 ‘소리울림’과 더불어 무궁무진한 ‘의미의 울림’이 담겨 있으며 그 가운데서 이 시 속의 ‘풀’과도 같은 민중의 삶에 대한 생각은 결코 군더더기가 아닌 것이다”¹²⁾라고 평가했다. 백낙청의 논의는 세부적인 분석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다분히 인상적인 비평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송명희는 “민중적인 힘은 김수영에게 소외로부터 인간을 회복시키는 극적인 모티브가 되게 하였다”¹³⁾고 평가 하고 있다. 이 논의의 경우 민중의 힘에 이 작품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양희철은 “작품에서 볼 수 있었던 민중의 성격은 다양하며, 억압 세력, 민중 운동가, 시적 자아 등의 소망에 역행하기도 하고 부응”하는 존재라고 밝혔다.¹⁴⁾ 이 논의의 경우 기존의 모방론적 관점의 논의들과는 달리 「풀」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연구했다는데 의미를 지니지만 이 역시 풀과 민중의 개념을 지나치게 동일시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 풀의 의미를 좀더 확대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것이 김춘수와 박진환의 논의이다. 즉 풀이 함축하고 있는 상징성을 ‘약자, 민중’으로 보고 이를 “민중, 산업근로자, 노동자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 기존의 민중개념을 넘어 역사적 민족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¹⁵⁾ 고 보았다. 그러

11) 염부웅,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1976, 봄), p.165.

12) 백낙청, 전계서, p168.

13) 송명희, 김수영론 인간상실과 그 회복에 대하여, 『현대문학』 (서울: 1980.8), pp.309~310.

14) 양희철, 김수영의 시 「풀」의 해석과 평가, 『국제문화 연구』 no.19(2001), pp.283~295.

15) 김춘수·박진환. 『한국의 문체사.명시 해설과 감상』 (서울: 자유지성사, 1998), p.231.

나 이러한 논의 역시 풀이 상징하는 대상의 범위가 좀더 확대되었다는 것 외에 기존의 논의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남호는 기존의 민중의 개념을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속성까지도 포용하면서 긍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중의 개념을 재해석하고 있다. 즉 억압세력에 짓눌려 늘 고통을 당하면서 비굴해지기도 하고 먼저 겁먹기도 하고 또 허약하기도 하지만, 긴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서도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의미를 이 작품을 통해서 찾고자 했다¹⁶⁾

그 밖에 풀의 의미를 전통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데 정재서와 최동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¹⁷⁾ 이들은 『논어』의 「안연」편을 인용하여 풀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다. 즉 정재서는 「풀」을 「안연」편의 내용을 ‘각색한’ 작품이라는 견해를 밝혔고, 최동호는 정재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통적인 공맹의 사상과 논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참여시의 상징으로서 「풀」이 탄생한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상으로 「풀」을 민중시학적 입장에서 평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는 단순히 김수영이 처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풀’을 ‘민중’이라는 대상에 한정시켜 설명하고 있어 「풀」이 지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은 「풀」을 작품 자체의 구조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시도했던 김 현은 기존에 풀을 민중으로 보고

16) 이남호, 전제서, pp.193~196.

17) 정재서, 다시 서는 동아시아문학 : 중국 소설의 기원을 찾아서, 『상상』(1994.9), pp.115~116.
성민엽, 김수영의 「풀」과 『논어』, 『서정시학』(2000 봄), pp.160~166.

자 했던 견해와 달리하여, 이 시의 구조적 측면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즉 “동사의 시체가 현재/과거로 대립되어 있으며, 그 반복적 움직임은 ‘눕다/일어서다, 울다/웃다’의 대립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라고 논하고 있다. 또한 풀 밖에 서 있는 누군가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해석으로 설득력을 지닌다.

김혜순은 “「풀」이 시간부사들에 의해 바람을 축으로 과거, 미래로 구성된다”¹⁹⁾고 보고 이를 통해 “풀’은 바람이나 시간과 상관없는 자의적 존재이며, 스스로 변화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규정했다.”²⁰⁾ 이렇게 풀을 실존과 자유의 상징으로 본 견해는 김혜순 외에도 김종철 등이 있다. 김종철의 경우 ‘풀이 상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인간’인지도 모르지만 「풀」을 반드시 버림받은 존재로 읽을 필요는 없다’²¹⁾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후 이러한 견해는 유재천²²⁾, 김경숙²³⁾에게 받아들여져 연구되었다.

구조론적 관점의 논의 중 첫째로, 리듬에 의한 주술성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동규는 “김수영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반복이 강조를 위해서 쓰여 지고 있지만 「꽃」과 「풀」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²⁴⁾ 하였으며, 이는 이시의 주술성에 대한 처음으로

18) 김 현, 전개서, pp.209~211.

19) 김혜순, 문학적 『장자』와 김수영의 시 담론 연구, 김승희 편, 『김수영 다시 읽기』 (서울:프레스21, 2000), pp.187~190.

20) 김혜순, 상계서, pp.189~190.

21) 김종철, 시적 진리와 시적 성취, 『문학과 사상』 (1973.8), p.124.

22) 유재천, 시와 혁명, 김승희편, 『김수영 다시 읽기』 (서울:프레스21, 2000), p.107.

23) 김경숙, 실존적 이성의 한계의식 혹은 극복의지, 『김수영』 (서울:새미, 2003), pp.165~171.

24) 황동규, 절망 후의 소리 -김수영의 「꽃잎」, 『심상』 (1974.9), p.86.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우석은 리듬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는데 “이 시가 반복에 의해 주술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풀은 눕고 그리고 운다’는 사실과 ‘어떻게 되더라도 풀은 다시 일어난다’²⁵⁾는 사실이라고 논하고 있다. 이 논의의 경우 언어들의 짜임 관계에 주목하였으며, 세밀한 분석을 통해 작품에서 주술성이 어떤 맥락에 의하여 작동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김준오는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고, 울고, 일어난다는 반복되는 논리적 모순성과 융화되어 이 시의 리듬은 한층 짙은 주술성을 느끼게 한다”²⁶⁾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논의 역시 황동규와 서우석의 연구처럼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술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술성이 이 시가 지니는 모순을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 유종호는 이 작품은 단시의 뼈대를 두고 있으면서 기존에 그가 보여줬던 작품과는 달리 한글만을 사용하였으며, 기초적인 단어만으로 썼다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수영의 여러 편의 작품 중에서 “김수영 특유의 역동적이고 당돌한 심상이 비근하고 범상한 원형적인 것으로 대치되었다”²⁷⁾고 평가했다.

또한 통사론적 관점에서 이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강웅식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통사론적 접근에 의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정보를 기초로 「풀」의 전체적인 의미해석에 접근하고자 했다²⁸⁾

지금까지 「풀」에 관한 논의를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5) 서우석, 전계서, pp.183~185.

26) 김준오, 『시론』, (서울: 삼지원, 1993), p.151.

27) 유종호, 전계서, p.237.

28) 강웅식, 김수영의 시 「풀」 연구, 『경희어문학』 no.7 (1986), pp.83~109.

즉 작품 외부요소와 연결 지어 설명하고자 한 모방론적 관점과 작품 자체에 관심을 가진 구조론적 관점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논의를 살펴보면, 모방론적 관점에 의한 해석은 지나치게 당시 사회상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어 작품이 지닌 해석의 다양성보다는 도식적인 해석에 머물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구조론적 관점의 연구는 관심의 대상을 작품 외부가 아닌 작품이 지닌 구조적 특징으로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된다고 보겠다. 그러나 그 해석의 틀이 시제 또는 리듬에 의한 주술성 등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어 연구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작품은 어떤 하나의 의미로 확정되기를 거부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학 텍스트는 고정된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풀」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은 주로 모방론적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창작된 당시 시대상과의 관련성에 집중되어 교수-학습되어져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교수-학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풀」의 미학적 측면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풀」이 수록된 현행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작품 해석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이때 고찰 대상인 문학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는 현행 7차 문학교과서로 한정하며 「풀」이 수록된 10종 교과서 중 본문에 기재된 4종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 작품의 교수-학습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수-학습 방법의 주된 작품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을 살펴보고 이것의 특징과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학습자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 할 수 있다’는 학습 목표를 위해 구조론적 관점에 따라 작품의 미학적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모색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방법 모색으로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기 모방론적 관점의 시 해석과 구조론적 관점의 시 해석을 포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이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한다. 이것은 지나치게 구조적 분석방법 또는 모방론적 관점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우쳐 학습자를 지도할 경우 학습자의 열린 사고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²⁹⁾에 따른 것이다.

또한 논의 대상을 「풀」³⁰⁾로 정하고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연작선 상에 놓여 있다고 평가³¹⁾ 받는 「꽃잎1」, 「꽃잎2」, 「꽃잎3」³²⁾을 비교 대상으로 한다.

29) 가장 이상적인 시 교육은 이 중간층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비평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사이에서 시 교육을 정위하는 일이야말로 시 교육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은 타당성을 얻는다 -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서울: 서울대 출판부, 1995), p.215.

30) 본고의 연구 대상인 「풀」과 해석을 위해 인용한 시들은 『김수영 전집 I 시』 김수영편(서울: 민음사, 1992)를 원문으로 삼았다.

31) 황동규, 전계서, p.126.

박수연, 「꽃잎」, 언어적 구심력과 사회적 원심력, 『문학과 사회』 no.11(1999), p.179.

강웅식, 전계서, p.80

최현식, 꽃의 의미-김수영 시에서의 미와 진리, 『포에지』 no. 16,(2001) , p.113.

32) 「꽃잎1」, 『현대문학』(1967.7).

Ⅱ. 문학 교과서에 실린 「풀」의 교수-학습 현황

다음에서는 학교현장에서 「풀」의 교수-학습이 어떤 방식되고 있는가를 논의하기 위해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학습 목표와 작품 소개 측면, 구체적 학습 내용의 측면, 학습 활동의 측면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풀」을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³³⁾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학습목표와 작품 소개 측면

현행 7차문학교과서에 나타난 학습목표와 작품 소개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사회적 의미와 시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는데,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를 읽고,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1960년대의 시문학의 전개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³⁴⁾
- 문학의 사회적 기능, 문학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³⁵⁾
- 이 시기의 시대적 상황을 안다

「꽃잎2」, 『현대문학』(1967.7).

「꽃잎3」, 『현대문학』(1967.7).

33)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지도서(하)』(서울:한국교육미디어, 2002).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하)』(서울:민중서림, 2002).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상)』(서울:지학사, 2002).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하)』(서울:금성출판사, 2002).

34)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서울:민중서림, 2002), p.96.

35) 김병국 외, 전게서, p.373.

·이 시기의 문학의 현실 대응 양상을 안다³⁶⁾

위에서 살펴볼 때, 「풀」의 경우 문학과 사회와의 관련성에 중점을 두고 학습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김수영이 참여시인이라는 점과 이 시가 창작되던 시기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뤄지던 시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작품을 참여시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에서 논의되고 있는 작품 소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민초’라는 말이 있다. 억눌리고 고통 받으면서도 이 땅의 역사를 지켜 온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풀은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약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 없기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 삼선 개헌 이후 쓴 글로써, 1968년 김수영의 유고작으로 발표된 시이다. 대표적인 참여시의 하나로 읽혀지고 있다. ³⁷⁾

4·19혁명을 계기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다지게 되었고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문학에도 반영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 의식에 기초를 두고 현실 문제에 깊이 참여하는, 이른바 참여문학이 대두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이었다. ... 구체적인 민중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났는데 「풀」이 바로 그런 작품이다. ³⁸⁾

김수영의 「풀」은 1960년대 뿐만 아니라 산업화 문학을 대표하는 시이다. 김수영은 그 당시 치열하던 순수와 참여의 논쟁에 있어서도 앞장서서

36) 박경신 외, 전계서, p.372.

37) 김창원 외, 전계서, p.200.

38) 박경신 외, 전계서, p.390.

참여 문학의 가치를 옹호했던 시인으로서 그의 사상이 ‘풀’에 잘 담겨져 있다³⁹⁾

위의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풀」은 1960년대 억압적 현실에 저항한 참여시이며, 70년대 민중문학의 대두에 초석이 되었던 작품이다. 문학작품을 이해하는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참조하는 일은 정당하다. 그러나 문학과 시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좀더 조심스럽게 거론되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문학교육에는 작품의 이해에 꼭 필요한 경우만 잘 요약해서 언급해 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습자의 전반적인 지적 수준에 대한 배려 없이 너무 전문적이거나 지나치게 도식적인 작품을 시대적 의미에 고정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문학사적 의미 또한 마찬가지다. 「풀」의 경우 이 작품을 참여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참여시와 순수시의 이분법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참여시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풀」이란 작품은 참여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는 논의도 있다. 즉 참여라는 뜻과 관련하여, 참여라는 말은 현실 참여, 현실의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개입한다는 뜻이라고 할 때, 특히 기성의 질서나 체제 그리고 권력에서 파생되는 현실적 부조리나 모순을 문제삼고 고발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따라서 참여적 성격의 문학작품에는 구체적인 현실 문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나 「풀」의 경우 이러한 것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풀」을 참여시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순수시나 참여시라는 이분법적인 시의 개념에 의한 해석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 작품을 참여시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39) 김병국 외, 전계서, p.376.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을 참여시로 해석해 학습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2. 학습 내용 측면

이 작품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 내용적 측면에서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이다. 이에 ‘풀’과 ‘바람’의 의미가 어떻게 교수 - 학습되고 있는지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문학지도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풀’의 상징적 의미 : 억압 속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견디고 맞서는 민중,

‘바람’의 상징적 의미 :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지배 권력, 외세 등).⁴⁰⁾

‘풀’은 민초, 즉 민중을 상징하며, ‘바람’은 억압하는 힘이나 억압하는 세력을 상징한다.⁴¹⁾

‘풀’은 곧 민중을 상징하며, 외부의 억압을 상징하는 ‘바람’에 대항하는 ‘풀’의 움직임은 통하여 민중들이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다.⁴²⁾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의 이해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춘 교수-학습 내용은 거의 모든 문학교과서가 일치된 설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이 위와 같이 ‘풀’은

40) 김창원 외, 전개서, p.238.

41) 박경신 외, 전개서, p.393.

42) 박경신 외, 전개서, p.107.

백성, 민초, 민중을 상징하고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외세나 독재 권력과 같은 세력을 상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풀이 곧 민중이고 바람이 곧 억압적 세력이라는 도식적 설명은 학생들의 작품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상징이라는 개념이 문제시 될 수 있는데, 즉 ‘풀’과 ‘바람’을 ‘민중’과 ‘억압세력’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것은 ‘풀’과 ‘바람’을 ‘민중’과 ‘억압세력’으로 볼 경우 풀을 민중의 알레고리가 되며, 바람은 억압세력의 알레고리가 되기 때문이다.⁴³⁾ 그 이유는 상징이 지니는 다의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민중’에 개념을 확대하여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범위, 정확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민중’에 대한 설명이 뒤따를 경우 작품을 쉽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풀’이 의미하는 바를 좀더 확대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현행 7차 고등학교문학교과서의 경우 ‘풀’과 ‘바람’을 다양한 해석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서도 찾아 볼 수 있었다. ⁴⁴⁾ 그러나 이 경우 중심 논지가 흔들린 채 설명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러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풀」을 설명하고 있는 ‘이해와 활동의 길잡이’에 실린 예이다.

이 작품에서 풀은 민중의 상징이며, 비를 몰고 오는 동풍은 외세의 상징으

43) 상징은 하나의 사물을 내세워 무수한 관념을 환기시키는 양식으로서 원관념이 잠재되며, 상징물과 원관념의 관계는 <1:∞>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알레고리는 풍자의 속성이 있으며, 미적 쾌감을 자극하기보다 지적 윤리적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어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조관념과 원관념의 의미를 <1:1>로 제한하여 자기 의도를 명백하게 한다.

- 윤석산, 『현대시학』 (서울: 새미, 1996), pp.232~236.

44) 비를 몰아오는 동풍을 외세의 상징이라는 식으로 의미부여 해석은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면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생물 생태학적으로 싫어할 리가 없다는 반론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김병국 외, 전서서, p.376.

로 해석한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은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일어나는 민중 바로 그 자체이다. 그러나 비를 몰아오는 동풍을 외세의 상징이라는 식으로 의미 부여해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 의미를 붙이게 되면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생물 생태학적으로 싫어할 리가 없다는 반론에 부딪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는 풀의 움직임이 움직임의 동력이 되는 바람보다 더 앞선다는 모순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생의 깊이와 관련된 어떤 감동을 맛볼 수 있다.⁴⁵⁾

위의 경우 기존의 ‘풀’을 민중으로 보던 견해에 황동규의 의견⁴⁶⁾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설명의 일부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설명이 애매하게 처리되어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위의 논의를 근거로 해서 이 시의 주제를 ‘풀의 끈질긴 생명력’⁴⁷⁾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황동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풀’이 의미하는 것을 풀 자체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풀을 민중으로 해석하는 도식화된 해석에서 벗어나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자는 차원의 언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논의의 핵심은 ‘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 모순을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언어의 주술성을 내세우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제 설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풀」의 해석상의 문제에서 있어서 위의 경우처럼 ‘풀’이나 ‘바람’의 의미를 하나의 대상으로 규정할 때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기 보다는 도식화되는 것을 발견

45) 김병국 외, 전계서, p.376.

46) 황동규, 전계서, pp.156~157.

47)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김병국 외)의 경우, 주제를 ‘풀의 끈질긴 생명력,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풀’과 ‘바람’의 의미를 텍스트가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체험과 경험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3. 학습 활동 측면

‘학습활동’은 크게 2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용확인과 내면화 단계가 그것인데, 다음에서는 「풀」을 교과서 본문에 기재하고 있는 4종 문학교과서 ‘학습활동’의 질문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문제점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 ①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
- ② ‘마지막 행의 상징적 의미와 여운에 대해 말하여 보자
- ③ 이 작품에서 서로 대비되는 시어들을 더 찾아보자.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해 보자
- ④ 이 작품을 소리 내어 낭송해 보고 작품이 주는 운율적인 효과를 말해 보자
- ⑤ 이 시에 나타난 이미지가 주는 느낌을 생각해 본다
- ⑥ 이 시에서 화자의 ‘풀’과 ‘바람’을 바라보는 화자의 존재와 위치를 알게 해주는 시구는?
- ⑦ 이 작품처럼 ‘풀’을 의인화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해 보자
- ⑧ 1960년대의 참여시와 순수시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고 시와 시인의 사명에 대해 토의해 보자

대략적으로 질문의 유형을 정리하면 위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보면 ①,②번 질문 유형의 경우 4종 교과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밖에 ③ 질문의 유형은 2개의 교과서⁴⁸⁾에 기재되어 있었다. ④~⑧의 유형의 경우 각각 1개의 교과서에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질문들이 가장 큰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풀’을 ‘민중’, ‘바람’을 ‘억압세력’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도식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③,⑦의 경우 시어의 구조와 의인법의 사용은 리듬의 형성, 주제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의 경우 이들의 각각의 특징과 그 효과까지 묻는 수준에서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

⑧의 질문의 경우 문학사와 관련지어 학습을 유도한 질문으로 위의 학습목표에서 지적했듯이 지나치게 전문적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참여시와 순수시를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④,⑤의 경우, 질문이 막연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이 작품을 연구하는 논자에 따라 화자의 존재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특히 ③,④,⑤,⑥,⑦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현행 7차 문학교과서는 1종류의 문학 교과서 뿐이었다. 이 점을 통해 볼 때 미적 구조에 대한 학습자의 탐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학습목표에 따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 작품의 경우 이러한 미적 구조가 작품의 의미 형성에 긴밀하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간과된다고 할 수 있다.

48) 김창원 외, 전계서, p.201 : 김병국 외, 전계서, p.276.

그 밖에 ④,⑦는 『고등학교 문학(하)』(김창원 외)에 기재 되어 있으며, ⑤,⑥은 『고등학교 문학(하)』(박갑수 외)에 기재되어 있다. ⑧의 경우 『고등학교 문학(하)』(김창원 외)에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내면화 단계에 해당하는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제재를 취할 것, 주제는 자유롭게 설정할 것, 대립적
심상, 간단한 통사구조의 반복형태’의 조건에 맞게 모방시 쓰기(다른 사물
로 바꾸어 모방시 쓰기)⁴⁹⁾

내면화 단계는 학습자 중심의 문학 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듯이 내면화 단계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모방시 쓰기가 전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교육적 효과적 측면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문학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나치게 당시 사회상과 관련지어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풀’을 단순히 ‘민중’으로 해석할 경우 상징의 개념의 혼란과 함께 해석이 지나치게 도식화된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이 학습활동의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로는 교과서의 학습활동 부분에서 작품의 미적 구조에 대한 탐구가 미흡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풀」의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통한 내용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기로 한다.

49) 박경신 외, 전게서, p.393 : 김창원 외, 전게서, p.203.

Ⅲ. 「풀」의 학습 내용 모색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풀」을 효과적으로 교수하기 위하여 우선 내용분석 측면이다. 「풀」을 해석하는 대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것은 앞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풀」의 교수-학습내용을 설정할 때 개념이 애매하거나 지나치게 당시 사회상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어 작품이 지니는 미적 구조의 측면이 간과되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 점과 관련하여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통해 이 작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교수시키기 위한 「풀」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1. 모방론적 관점의 경우

1) 「풀」의 역사적 배경

모방론적 관점은 “작품이란 대상을 모방한 결과라고 본다. 그래서 창작 행위나 작품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모방 외에도, ‘반영(reflection)’, ‘재생(recreation)’, ‘모조(counterfeiting)’, ‘모사(copy)’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⁵⁰⁾ 따라서 모방론적 관점이 문학작품이 창작됐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관련성에 집중한 논의라고 할 때 모방론적 관점에 따른 「풀」의 해석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자 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풀」이 창작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풀」이 창작된 1960년대는 4.19항쟁, 일인 독재의 정치

50) 윤석산, 전계서, p.67.

체계의 강화 그리고 급속한 경제 정책의 부작용인 빈부의 격차와 농촌의 붕괴 현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문학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4.19라고 할 수 있다. 4.19는 자유당 정권하에서 극단적으로 억압되었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부활하는 계기였다.

1950년대에는 6.25의 참혹한 경험과 독재 권력을 유지, 강화하려는 자유당 정권에 의해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강요되었고, 이 때문에 민족의 화해나 통일 문제는 표면적으로 거론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0년대의 벽두에 터져 나온 4.19의 항쟁은 그 동안 억압되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부활시켰다. 비록 곧바로 발생한 군사쿠데타로 실패한 혁명이라고 할지라도 혁명을 통해 얻은 주체적 자신감은 근대화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 파급력이 큰 것이었다.

문학의 경우도 ‘유감스럽게도 <혁명문학>을 갖지는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혁명정신>은 그 뒤의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탐색과정에서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⁵¹⁾고 말한 박태순의 말처럼, 4.19혁명은 그 이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성향, 어떤 진보 능력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문인들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풀」을 해석하자는 것으로 즉 작품에서 풀과 바람이 맺는 관계는 현실에서 민중과 억압세력이 맺는 관계와 같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다음에 서는 모방론적 관점에 따라 이 시를 해석하고자 한다.

2) 모방론적 관점의 작품 분석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문학에서 모방론적 관점 중 민중시학

51) 박태순, 4.19의 민중과 문학, 『4월 혁명론』(서울 : 한길사, 1983), p.263.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러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김수영의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작품 중 「풀」은 ‘바람보다 늦게 눕고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웃는다’는 점과 제재가 풀이라는 점 때문에 민중시학의 지지를 얻었다. 나아가 이들은 민중의 참모습을 이 시에서 찾고자 했다.

모방론적 관점의 작품 해석 방법은 다분히 우의적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구조는 <a가 b와 맺는 관계는 c와 d가 맺는 관계와 같다>는 유비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풀」에 대한 우의적 해석의 중추는 작품에서 풀과 바람이 맺는 관계는 현실에서 민중과 억압세력이 맺는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이 유비관계의 단서는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눕고 /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라는 대목이다. ‘비를 몰아오는 바람’을 뜻하는 ‘비바람’은 대체로 강한 느낌을 주며, ‘시련’이나 ‘역경’과 같은 것을 연상시킨다. 눕는 동작은 일어나는 동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느낌을 주며, ‘패배’나 ‘좌절’과 같은 것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흐린 날씨는 맑은 날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둡고 슬픈 느낌을 주며, ‘불행’이나 ‘시련’이 지속되는 상황을 연상시킨다. 「풀」의 우의적 해석은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여 ‘풀’과 ‘바람’의 관계를 ‘민중’과 ‘억압세력’으로 설정한 다음, 작품에서 풀이 눕는 동작이 일어나는 동작보다 더 많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어나는 동작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렇게 「풀」의 해석과 관련하여 ‘풀(민중)/바람(억압세력)’, ‘눕다(패배)/일어나다(승리)’, ‘울다(슬픔/ 웃다(기쁨)’라는 대립적 상징의 구도로 작품을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연에 나오는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 늦게 울어도/바람보다 먼저 웃는다”라는 대목에 근거하여 강인하고 끈질긴 민중의 형상을 그려낸다. 즉 민중이 비록 처음에는 억압세력에 의하여 고통 받고 슬퍼하지만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억압

세력이 힘마저 압도하며 웃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보았다

그러나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이 지나치게 도식화된 해석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들어 좀더 다양하게 ‘풀’ 과 ‘바람’ 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김춘수

와 박진환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작품에 나오는 ‘바람’ 과 ‘풀’ 이 각각 ‘억압 세력’ 과 ‘민중’ 을 의미한다는 관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이들은 ‘풀’ 의 상징적 의미를 확대 해석하였다. 즉 이 시를 ‘약자의 강인한 생명력을 주제로 한 시’⁵²⁾라고 설명하면서 풀이 함축하고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농민, 산업근로자, 어민, 노동자와 같은 시류적 민중개념을 넘어 역사적 민족의식으로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다고⁵³⁾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풀」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바람의 상징성에 대해서 종전의 모방론적 관점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배계층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또한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는 것을 풀의 생명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모방론적 관점과는 다르지는 않으나 해석의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모방론적 관점은 ‘풀’ 과 ‘바람’ 의 상징적 의미를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 지어 설명 한 것이라고 할 때, 「풀」을 해석하는 또 다른 하나의 논의로서 학습자에게 이해되어야 한다.

위의 모방론적 관점의 해석의 경우, ‘풀’ 과 ‘바람’ 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경우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풀’ 을 피지배계층으로, ‘바람’ 을 지배계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바

52) 김춘수·박진환, 전계서, pp.230~234.

53) 김춘수·박진환, 상계서, p.232.

탕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시킬 경우 자칫 학생들의 사고력 신장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7차 문학 교과서 교육과정의 목표는 문학적 상상력을 향상시키고 작품을 수용자의 처지에서 비판적,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문학 활동의 결과를 내면화하여 자신의 삶으로 구체화 한다⁵⁴⁾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교수-학습을 수행할 때 이러한 모방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 해석을 여러 작품 해석 중 하나의 해석으로 학습자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2. 구조론적 관점의 경우

구조론적 관점은 시어의 구조, 리듬, 표현기법 등 작품 자체의 요소에 집중해서 작품을 해석하려는 연구방법이다. 다음에서는 구조론적 관점에서 「풀」의 내적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시어의 구조적 특징

황동규는 “불과 몇 개 안 되는 몇 쌍의 단어들로 이만한 길이에 이처럼 단순한 시도 없겠지만 동시에 이만큼 복잡하고 난해한 시도 드물 것이라고”⁵⁵⁾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이 시를 푸는 열쇠 역시 이 시의 시어들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시어의 구조를 통해 이 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연 ①풀이 눕는다

54) 제 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8), pp. 152~153.

55) 황동규, 전계서, pp.156~157.

- ②비를 몰고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눅고 드디어 울었다.
- ③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1연은 2,3연과 두 가지 면에서 구별이 된다. 먼저 1연은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문장은 ①로 “풀이 눅는다”이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하나의 문장으로 그것의 주어는 “풀은”이다. 1연의 “풀”의 조사 “이”와 “은”의 대립은 변별적이다. “풀은”으로 쓰였을 때 과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2연과 3연과는 다르게 풀의 과거 동작을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풀”과 “날”은 인과관계다. 1연에서는 “날이 흐려서” 풀은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가 된다.

“풀이 눅는다”를 이 텍스트의 기본전제라 할 때 “울다”는 분명 새롭게 부가된 행위가 된다. 그리고 “눅다”와 “울다”는 연속적 행위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특히 1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드디어’라는 부사어의 사용이다. 이 말은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어찌면 곧 비를 맞게 될 풀의 감격(극적체험)적 순간의 모습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존재론적 숙명을 넘어선 체험과 그 체험의 극적 감동의 순간을 묘사한 것이라는 의견도⁵⁶⁾ 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날이 흐려서’라는 부분과 연결시켜 설명할 때, ‘울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 2연 ④풀이 눅는다
 ⑤바람보다 더 빨리 눅는다
 ⑥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⑦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56) 강웅식, 김수영의 시 「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4), p.37.

다음으로 2연을 살펴보기로 하자 1연에서의 “눅다”, “울다”의 행위가 2연에 오면 “바람보다 더 빨리 눅고, 울고, 그리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가 된다. “더 빨리”에서 “먼”’로 전환되면서 풀의 자율적 움직임이 나타내게 된다. 또한 “눅는다”보다 능동적인 어감이 강한 “일어난다”가 등장한다. 각각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움직임과 기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은 바람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연
- ⑧ 날이 흐리고 풀이 눅는다
 - ⑨ 발목까지/발밑까지 눅는다
 - ⑩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 ⑪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⑫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⑬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⑭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눅는다.

이제 3연으로 오면 앞서 밝힌 “날”과 “풀”이 대등절로 병렬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풀의 형상은 보다 구체화된다. 즉, 풀의 움직임이 “발목”, “발밑”, “풀뿌리” 심화되고 있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먼저 웃는다”를 보면, ‘누워도’와 ‘울어도’가 한 쌍이 되고, “일어나고”, “웃는다”가 한 쌍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연에 가면 “눅는다”, “일어난다”, “운다”의 동사에 “웃는다”가

새롭게 부가되어 설명되고 있다. 즉 1연에서 ‘울었다’ 에서 2연에서는 ‘일어나다’ 로 그리고 마지막 연인 3연에서 ‘웃는다’ 로 각각 풀의 행위가 발전하여 나타난다. 특히 이 동사들의 특징적인 점은 현재로서 시적 시간과 행위가 동일화를 이룬다. 이러한 현재시제의 사용을 통해 풀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풀과 바람의 관계를 볼 때 2연보다 풀의 자율이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연에서 풀은 스스로 눕고 울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능력은 ‘바람보다 늦게’, 즉 바람에 의해 촉발되고 계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웃는, 즉 바람에 의한 수동적 촉발이 아니라 능력을 스스로 계발하는 능동적 존재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주체로서의 자율성의 문제는 “풀뿌리가 눕는다” 로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생태론적 한계를 뛰어넘는 자율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시어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들 시어의 특이한 점은 구조적 짜임에 의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에 유의하여 교수-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풀의 움직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가와 이것이 작품의 의미 형성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교수-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이 시어의 대립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다. 이 시에서 대립관계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다뤄져 왔다. 즉 ‘풀/바람’의 명사 대립과 ‘눕다/일어나다’, ‘울다/웃다’의 동사 대립이다.

우선 풀과 바람의 대립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비록 ‘더 빨리’, ‘먼저’등의 부사어를 사용하여 ‘풀’과 ‘바람’의 행동이 대립되는 면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모방론적 관점에서 초점을 맞춘 선악의 기준에 따른 대립이 아닌 바람에 의해 촉발된 ‘풀’의 움직임과 주체적 존재로서 풀의 변화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무엇보다 강조해야할 점은

동사의 대립이며, 이러한 대립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풀 > (68) 전문

1연에서는 주로 ‘풀이 눕고 울었다’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던 것이

2연에 오면 바람에 의해 쓰러지는 풀은 ‘바람보다 빨리’, ‘바람보다 먼저’ 라는 스스로 눕고 일어서는 행위로 발전하게 된다. 즉 2연에 오면 풀의 이미지가 좀 더 자유로워진 상승하는 풀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것이 3연에 가서는 ‘밭목’에서 밭밑으로 그리고 ‘풀’에서 ‘풀뿌리’ 까지 드러눕는 즉 하강하는 풀의 이미지로 발전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반복을 거치면서 풀이 눕는 속도만큼 빠르게 다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즉 이 시는 대립되는 시어 즉 ‘눕다/일어나다’라는 하강과 상승의 이미지의 반복을 통해 역동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어의 대립되는 부분을 찾고 이것을 통해 작품의 이미지 형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2) 리듬, 수사법의 특징

(1) 반복을 통한 리듬과 주술성

이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것이 시어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시의 시어 반복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풀이 눕는다
 ……풀은 눕고
 …… 울었다.
 …… 울다가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 눕는다

바람보다 …… 울고
바람보다 …… 일어난다

…… 풀이 눕는다
……

…… 눕는다
바람보다 …… 누워도
바람보다 …… 일어나고
바람보다 …… 울어도
바람보다 …… 웃는다
……풀뿌리가 눕는다.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눕고/울고/일어난다’ 의 동사가 1연부터 3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풀 ‘눕고’, ‘울고’, ‘일어난다’ 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주술적인 힘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⁷⁾ 반복에 의한 주술은 “풀이 눕는다” 는다는 행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동사가 추가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1연은 ‘눕는다/울다’, 2연은 ‘눕는다/울다/ 일어나다’ 3연에서는 ‘눕는다/일어나다/울다/웃다’ 로 점층적 구조로 확대되어 나간다. 이러한 점층 구조는 의미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모순을 모순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주술성을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언어의 리듬과 리듬의 지속에 의하여 「풀」은 자체의 속성을 벗어던지고 자율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풀이 바람보다 빨리 눕고 일어난다는 행동에 대한 모순보다는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 ‘눕고, 울고, 일어난다’ 는 동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것은 결국 ‘풀뿌리가 눕는다’ 는

57) 황동규, 『사랑의 뿌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1976), pp.156~157.

하강 역시 다시 더 큰 상승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또한 이 시의 시어의 반복은 주술성 뿐 아니라 리듬형성과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김수영에게 있어서 리듬은 중요한 표현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풀」의 경우 반복에 의한 리듬 형성은 이 시가 지니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풀이 /눅는다//
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눅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
다시/ 누웠다//

풀이 / 눅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눅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풀이 눅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눅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풀뿌리가 눅는다 58)

1연의 과거시제가 사용된 부분에는 ‘눅다’, ‘일어나다’ 즉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연에 가서는 ‘풀이 /눅는다’ 에서 ‘바람보다/더 빨리 눅는다’ 라고 표현하면서 속도를 빨리한다. 속도의 가속화는 다음 행에서 계속된다. ‘바람보다 / 더 빨리 울고/’ 라고 표현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라는 반복을 통해 ‘눅는다’ 와 ‘울고’ 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다음 단계인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눅는다//’ 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를 속도를 내어 읽어버리는 순간 다음 행인 ‘바람보다/먼저 일어난다//’ 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3연에서는 풀의 운동은 ‘눅다→일어나다’ 로 곧바로 전환하고 ‘울다→웃다’ 로 변화하여 의미상 대구를 이루면서 운동의 반복성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 반복운동은 아래의 ①-④와 같이 복문 형태인 하나의 문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어, 풀의 운동에 한층 더 속도감을 부여한다

①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58) 김현, 전개서, p.209.

‘풀이 눅는다/비를 몰아 오는/ 동풍에 나부껴/풀은 눅고/드디어 울었다/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다시 누웠다/풀이 눅는다/바람보다 /더 빨리 눅는다/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바람보다 / 먼저 일어난다/날이 흐리고/풀이 눅는다/밭목까지/밭밑까지/눅는다/바람보다 /늦게 누워도/바람보다/먼저 일어나고/바람보다/늦게 울어도/바람보다 / 먼저 웃는다/날이 흐리고/풀뿌리가 눅는다’ - 서우석, 전개서 p.154

본고에서는 그 중 김현의 리듬구분¹⁾을 따르기로 한다. 이것은 리듬을 주어 읽는데 좀더 자연스럽게 읽혀진다는 점 때문이다. 노철 역시 3연을 제외하고는 김현의 논의를 따르고 있다 ‘구문상으로는 역시 두 박자로 읽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내적 원리로, 44조의 리듬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김현의 논의가 설득력 있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12행의 예외적인 박자는 전체적인 2박자 리듬에 변화를 주어 더욱 다채롭게 느껴진다.

- ②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 ③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 ④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 ⑤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그러나 대구를 이루면서 속도감을 부여하던 것이 3연의 마지막 행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의 행으로 옮겨 가면서 속도감이 늦춰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도의 감속은 이 시의 마지막 행인 “⑤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로 집중되는 효과를 얻는다. 따라서 이 시의 마지막 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풀뿌리가 눕는다.” 라는 행동은 좌절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상승을 전제로 한 하강이라는 점에서 나약하고 패배적인 정서를 표현한 시라는 이 시의 해석⁵⁹⁾은 설득력을 잃는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의 시어의 반복은 모순을 모순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주술성 형성은 물론 리듬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은 역동적인 이미지 형성과 함께 “풀뿌리가 눕는다” 는 행동을 통해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감의 주체로서의 풀의 이미지 형성과 다음 행동을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리듬을 단순히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리듬이 의미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학습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즉 ‘눕는다’와 ‘일어난다’, ‘운다’와 ‘웃는다’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 행인 “풀뿌리가 눕는다” 다음에 어떤 내용일 을 것인가를 추측하게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왜 이런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는지 확인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이 시는 적당한 분량에 반복과 대구를 통해 낭송하기에 효과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낭송하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59) 금동철, ‘풀’의 미학, 그 허무주의, 『시와 시학』 (1999, 가을호), pp.256~269.

게 리듬을 익힐 수 있다.

(2) 수사법의 특징

이 시의 수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의인법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즉, ‘눅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 라는 행동을 통해 풀이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눅는다’ 와 ‘일어난다’ 라는 다소 단순한 행동에서 ‘운다’ 와 ‘웃는다’ 라는 감정인 요소를 포함한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풀이 운다’ ‘풀이 웃는다’ 의 발상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소 당혹스럽게 한다. 기존에 ‘웃는다’ 와 ‘운다’ 가 풀의 어떤 움직임을 의인화 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것에 대해 김경숙은 다음과 같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시에서 울다라는 정서는 이중의 의미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풀이 눅고 / 드디어 울었다’ 와 ‘더 울다가/다시 누었다’ 라는 두 문맥에서 울다의 의미는 매우 다르게 작용한다. 전자에서 눅다는 일어나다와 의미상 대립되는 것으로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한다. 따라서 울다는 그로 인한 슬픔의 정조를 나타낸다. 반면에 후자에서 눅다는 울다 자체와 의미상 대립을 이루며, 이때 울다는 눅다라는 절망적 상태에 대한 저항의 이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 의지의 좌절은 마지막에 제시되는 눅다의 절망감을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울다라는 행위는 수동적인 정서 반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감정 표출이기도 하다.⁶⁰⁾

위의 논의에 유의하여 살펴 볼 때 ‘웃는다’ 와 ‘운다’ 는 부단한 움직임 속에서

60) 김경숙, 전계서, p.165.

의인화된 풀이 느끼는 감정의 양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시의 의인법은 풀의 행동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수단이라 할 수 있다.

3)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

'풀'과 '바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왔다.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모방론적 관점의 논의에서 시작됐다. 즉 '풀'을 민중으로, '바람'을 풀을 억압하는 억압세력으로 인식한 것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民草라는 개념에서의 草의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김수영이 이렇게 관습적이고 상투적인 상징을 사용했을까 하는 의문⁶¹⁾과 함께 시어의 의미구조상 긍정적인 의미로서 민중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시어의 구조와 리듬, 그리고 수사법의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민중'이라고 범위를 한정지어 설명하기보다는 좀더 확대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풀과 바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처음으로 '풀'의 의미 해석을 시도했던 모방론적 관점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 모색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모방론적 관점에서는 선악의 기준에 따라 선한 존재인 풀을 높히고(좌절시키고) 울게 하는 바람은 선악의 이분법상 악한 존재로 처리했다. 또한 '날이 흐려서'라는 시어는 모방론적 입장에서 민중이 살기 힘든 시대적 배경 상징하는 것으로

61) 풀을 민중의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독법이 판을 치게 되었고, 7,80년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마침내 풀은 민중시의 가장 보편적인 화두가 되었다. 그러나 김수영 시인은 결코 이런 관습적 상투적, 그래서 맥 빠진 상징을 가지고 시를 쓸 시인이 아니다 - 신경림,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우리교육, 1998), p.337.

해석하여, ‘날이 흐려서’ 부는 ‘바람’ 은 ‘풀’ 로 상징되는 민중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억압세력’ 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바람에 의해서 ‘눅는다’ 는 것은 ‘좌절’ 로 해석되었고 반대로 ‘일어섬’ 은 극복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풀과 바람을 각각 ‘민중’ 과 ‘민중을 억압하는 세력’ 으로 해석할 때 위에서 언급한 ‘풀뿌리가 눅는다’ 의 문제와 ‘더 빨리 누워도’, ‘늦게 울어도’ 등의 시어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것은 모방론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덕목으로 생각되어지는 민중의 개념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바람을 단순히 선악의 기준에 따른 악한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풀과 바람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를 살펴 볼 때 1연의 ‘동풍’ 단어가 등장한다. 즉, ‘비바람’ 이란 시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풍’ 이란 시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강웅식의 해석은 흥미롭다

‘동풍삭임에 돌아온 제비’ 라거나 ‘동풍실연’ 이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되듯 그것은 봄, 바람을 가르킨다. 봄에 곡식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자양분이 되는 비를 몰아오는 바람이라고 해서 곡풍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동풍’ 이다. ‘동풍세우에 듯듯나게 도화로다’ 라는 고시조의 일절에 나오는 ‘동풍’ 은 ‘비바람’ 의 거세고 황량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고 풍요로운 느낌을 준다⁶²⁾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풍’ 이라는 시어의 의미를 볼 때, 풀에게는 반가운 존재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웅식의 의견을 따를 때 ‘바람’ 을 ‘억압

62) 강웅식, 전계서, p.61.

자' 로 보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풍' 의 의미와 더불어 바람의 의미는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연에 나오는 '나부껴' 라는 시어는 “연기나 안개, 또는 얇은 천이나 종이, 머리카락 따위가 흔들려 날리듯이 움직이다”⁶³⁾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1연이 바람에 휩쓸려 풀이 마구 흔들리다가 땅으로 휘어지곤 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해석은 의문에 여지가 남는다. 바람은 풀을 뿌리 채 뽑아 버릴 만큼의 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바람의 모습은 2연과 3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2연과 3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풀 뿐만 아니라 바람 역시 눕고 울고, 웃고, 일어나기도 한다는 점이다. 모방론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강자로서의 '바람' 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풀' 과 '바람' 의 관계는 '지배/피지배' 와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 으로 대립시키기에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풀」 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평가받는⁶⁴⁾ 「꽃잎1」, 「꽃잎3」 을 살펴보도록 하자.

누구한테 머리를 숙일까
사람이 아닌 평범한 것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벼를 터는 마당에서 바람도 안 부는데
옥수수 앞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조금

바람의 고개는 자기가 일어서는 줄
모르고 자기가 가 닿는 언덕을

63) 강웅식, 상계서, p.65.

64) 황동규, 전계서, p.122.

모르고 거룩한 산에 가 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르고 조금
안 즐거움이 꽃으로 되어도
그저 조금 꺼졌다. 깨어나고
언뜻 보기엔 임종의 생명같고
바위를 뭉개고 떨어져 내린 한 잎의 꽃잎같고
혁명 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바위 같고
혁명같고
먼저 떨어져 내린 큰바위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진 작은 꽃잎 같고
나중에 떨어져 내린 작은 꽃잎 같고

<꽃잎1>(67)

깜깜한 소식의 실낱 같은 완성
실낱 같은 여름날이여
너무 간단해서 어처구니 없이 웃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간단한 진리에 웃는
너무 진리가 어처구니 없이 간단해서 웃는
실낱 같은 여름밤의 아우성이여
실낱 같은 여름방의 아우성이여
너무 쉬운 하얀 풀의 아우성이여

<꽃잎3>(67)

위의 시를 살펴보자. 맨 먼저 「꽃잎1」에서 ‘바람’은 다른 사물과 하나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즉 다른 사물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자하는 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을 「풀」과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라고 볼 때 바람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바람이 극복해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바람을 선한 존재로 해석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물에 선악이 공존하듯이 풀과 바람 또한 이러한 존재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람은 우연한 기회에 풀을 타율적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로 자각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풀」 전문(68)

즉, 제1연에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었던 풀이 제2연에 가면 바람보다 더 빨리 눕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일어나기도 한다. 즉 생태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자율적 힘을 얻은 것이다. 이것은 제3연에 가면 더욱 확실해 지는데 이것에 제3연 마지막의 18행에 가면 ‘풀뿌리가 눕는다’ 라는 행위를 통해 자율적 힘은 극대화된다. 즉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의 해방을 뜻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풀이 타율적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의 바람의 역할 역시 ‘나타’ 와 ‘안정’ 을 뒤집는 폭포의 소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바람은 선악의 구분에 의한 악한 존재가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풀은 나약한 민중의 모습이 아닌 좀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진 자율적 존재로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IV. 「풀」의 교수-학습 모형 모색

문학 영역의 교수-학습은 문학의 본질 자체가 갖는 다양성으로 인해 단순화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시 교육에 있어 모형을 도식화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시를 포함한 모든 문학 수업의 문학과 문학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 수업에 적절한 모형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고, 「풀」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설정해 보도록 한다.

1.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 검토

문학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 ‘시’라는 의미에서 볼 때, 시의 교수-학습 방법 역시 그 작품에 따라 개별적이면서 그 작품의 특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 작품의 특징에 맞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은 대체적으로 5가지 종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체험의 내면화를 중심 원리로 한 지도모형’, ‘읽기 과정으로서의 시 지도 수업 모형’, ‘단계적 접근을 통한 시 지도 수업 모형’, ‘구성 요소의 분석을 방법론으로 한 시 지도 모형’, ‘텍스트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해석 방안을 제시한 시 지도 모형’ 등이다.

구인환의 모형⁶⁵⁾은 전체에서 부분으로 다시 전체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자의 개별 경험을 활용하도록 열린 구조로 되어 있다. 정동화⁶⁶⁾는

65) 구인환,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서울:삼지원, 1998), pp.248~249.

문학 학습이 다른 인지 학습과 변별되는 것을 내면화 과정이라고 보고 문학 학습을 ‘내면화의 감수, 반응, 가치관, 성격화’의 과정으로 나타내었다. 김은전의 수업모형⁶⁷⁾은 시에서의 읽기를 통독, 정독, 미독의 3단계로 나누어 지도 단계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읽기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교육개발원 모형⁶⁸⁾은 준비, 분석, 종합이란 일반 수업 모형을 운문 수업 모형에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김창원의 모형⁶⁹⁾ 시의 유형을 ‘기호-의미론적 텍스트’, ‘소통-의미론적 텍스트’로 나누고 이를 다시 전자는 ‘비유적 텍스트’와 ‘반어적 텍스트’로 후자는 ‘서술적 텍스트’와 ‘대화적 텍스트’의 4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각기 고유한 해석의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경규진⁷⁰⁾은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반응 중심 문학 교육 방법 연구로 ‘텍스트와 학생의 거래-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련’의 단계로 시교육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중 몇가지 모형들을 통해 「풀」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하기 위한 모형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구인환 외의 시 수업 절차모형>⁷¹⁾

1.계획단계

수업목표의 설정, 평가 요목의 작성

2.진단단계

시에 대한 지식, 체험, 감수성 등의 진단, 진단을 위한 도구 마련

66) 정동화 외, 『국어과 교육론』 (서울: 선일문화사, 1984), pp.162~164.

67) 김은전 외, 『국어과 교육』 (서울: 한국능력개발사, 1975), pp.222~261.

68) 김재복, 『수업 전략』 (서울: 배영사신서, 1984), pp.196~197.

69) 김창원,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p.89.

70) 경규진, 반응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pp.160~172.

71) 구인환 외 4명, 전제서, pp.248~249.

3.지도단계

시작품의 전체적 접근(낭독 및 윤독, 관련 경험의 재생과 경험 교환),
시 작품의 부분에 접근(시의 이미지, 시의 율격, 구조 이해), 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내용과 형식의 어울림, 말맛과 의미의 어울림, 의미의
다의성과 함축성 이해)

4.평가단계

문학 교육의 평가의 일반적 고려사항에 의거, 시교육의 평가 방법에
의거

5.내면화단계

시적 체험의 수평적 확대, 시적 체험의 수직적 심화, 시 작품 쓰기

<구인환 외의 시 수업 절차모형>에서 제시한 위의 교수-학습 모형은 수업활동
및 운영의 시간적 전개순서를 나타내고 피이드백(feedback) 효과가 있다. 또,
그 목표별 수업 모형의 가능성을 전제로 수업의 과정 측면에서 지적, 정의적, 환
경적 수준에 따라 목표별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한국교육개발원 제재 중심 수업모형>⁷²⁾

1.준비단계

시낭독하기

2.분석단계

①형식단계-시의 연과 행의 배열 살피기, 운율 찾아내기, 각 연의 형식
적 짜임 알기, 낭독, 듣기와 낭독하기 활동

②내용분석-각 연에 사용된 심상 상상하기, 숨겨진 의미 찾아내기, 각
연의 지시적 의미 알아내기, 비유나 상징을 해석하여 함축적 의미 알아
내기

72)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pp. 381~388.

3.통합 단계

- ①분석 단계에서 형식 분석과 내용 분석의 통합
- ②시 작품 전체의 주제나 효과(분위기나 느낌과 원인)
- ③시를 즐기는 감상 경험 찾기
- ④시 암송 활동하기

위의 <한국교육 개발원 제재 중심 수업모형>은 작품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내면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시의 낭송과 암송을 중요한 과정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평가의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경규진의 반응중심 수업 모형>⁷³⁾

1단계 : 작품 읽기

심미적 독서 자세의 격려, 텍스트와 거래 촉진

2단계 :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래-반응의 명료화

반응의 기록, 반응에 대한 질문, 반응에 대한 토의, 반응의
반성적 쓰기

3단계 :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관련-반응의 심화

두 작품의 연결, 상호 텍스트성 확대 태도 측정

위의 <경규진의 반응중심 수업 모형>은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작품에 대한 이해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수업 모형들을 정리해 보면, 각각의 단계별로 ‘계획단계 →진단 단계(준비단계)→지도단계(교수-학습단계)→평가단계(평가, 확인단계)→내면화

73) 경규진, 전제서, pp.162~170.

단계(보충, 확산단계)' 등 5단계로 나누어 공통되는 논의를 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위에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풀」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하기 위한 2가지 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기존의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접목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 그것이고 이어 두 번째로, 위의 III장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이다.

우선 첫 번째 모형은 기존의 교수-학습 단계에 따라 「풀」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기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즉 '도입(통독하기)→구조론적 관점에 따른 접근(가시어의 구조, 운율, 이미지, 비유적 표현)→모방론적 관점(시대상황 관련)→시의 종합적 이해(태도와 관점 파악 및 내면화하기, 비판하기, 관련 작품 파악하기)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현행 7차문학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서, 미학적 측면에 대한 교수-학습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과 내면화 과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교수-학습 모형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 교육은 '문학의 수용과 창작'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학 교육이 단순히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작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이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통해 수용자인 독자(학습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예술적 체험을 하고, 작품세계에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다⁷⁴⁾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특정한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야 하며 텍스트에 대한 기존의 정제된 해석적 설명

74) 박인기, 문학제재- 교수-학습의 수용과정적 의미, 『교육개발』 no 8(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86), p.48.

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학습자가 교수-학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 세계를 접하게 함으로써 시적 감수성 및 상상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으로 두 번째로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이 자칫 학습자를 배제한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을 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기로 한다.

2. 「풀」 교수-학습 모형 구안 및 적용

다음에서는 우선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적절하게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교수-학습 모형 적용 1

(1) 도입

① 통독하기

가. 합독하기

- 반 전체가 함께 이 시를 읽어보자. 이 때 행과 연을 고려하여 천천히 함께 읽는다
- 상황을 그려보면서 다시 묵독하기

나. 말하기

- 이 시의 시적 상황을 상상하며 읽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 볼까요?

- ‘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해보세요?
- 왜 작가는 제목을 ‘풀’이라고 했을까요?
- 바람이 어떻게 눕고, 울고, 일어날 수 있는가?
- 다른 느낌이 든 사람은 없나요?
-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이 시를 통해서 다양한 상상을 하게 될 것이다. 즉 푸른 풀밭을 떠오릴 수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풀밭을 상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구조론적 관점의 접근

① 시어의 구조

-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이 있나요?
- 이 시에서 대립을 이루는 시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연에서 3연으로 넘어가면서 첨가되는 서술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왜 ‘동풍’의 의미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시체가 과거에서 현재로 옮겨오는 연은 몇째 연인가요?

②운율

- 이 시의 리듬은 어떤가요?
- 1연과 2,3연의 경우 리듬의 속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왜 속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나요?

이 시의 경우 2음보의 리듬이 느껴지며 특히 2,3연의 경우 부사어의 첨가로 속도감을 형성한다

③이미지

-이 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④비유적 표현

-이 시에서 주로 사용된 비유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눅는다’, ‘일어난다’, ‘운다’, ‘웃는다’ 등의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다른가요?

-‘풀’과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있나요?

(3)모방론적 접근

①시대상황

-이 시가 쓰여진 시대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1960년대의 4·19와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던 시기이다. 또한 근대적 산업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4·19혁명의 의의는 민중적 시각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는데 의의를 지니며 이것은 60년대 후반 근대산업 사회를 맞이하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공동체의식으로 변형, 발전하였다.

-이 시와 어떤 연관을 지을 수 있나?

-‘풀’과 ‘바람’ 속에는 어떤 시대상이 반영되고 있는가?

-‘풀뿌리가 늙는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이때 지나치게 도식화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민중’의 개념을 한정된 개념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시의 종합적 이해

① 태도와 관점 파악 및 내면화하기

-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약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의지)을 가진 주체로서 ‘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이 시를 통해 보여주는 60년대 사회상과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이 시를 배운 후 자신의 삶의 체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이 시가 여러분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말해봅시다

시에선 비록 비유와 함축적 요소가 있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힘들지만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킬만한 요소를 찾아 학습할 때 그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이 발표를 꺼려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으며, 이 시의 경우는 자신의 좌절의 순간이나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계기 등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 이야기 할 수 있게 한

다.

②비판하기

- 이 시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해보자
- 고치고 싶은 부분은 없는가?
- 있다면 어디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이 부분에서는 ‘꼭 흠을 잡겠다든지’, ‘고쳐야겠다’든지 하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비록 객관적이진 못하더라도 다양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창작 교육과 연계될 수 있다.

③관련 작품 파악하기

김수영의 문학 전개상 시의 구조와 시어의 반복을 통한 리듬형성 때문에 같은 계열의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는 「눈」(『문학예술』 1966), 「꽃잎1」(67), 「꽃잎2」(67), 「꽃잎3」(67)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 김수영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죽음의 세계를 초월한 맑고 힘찬 서정의 세계와 관련하여 함형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시인 부락』 창간호, 1936)과 연결시켜 설명해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작품에나 관련 작품은 있기 마련이고, 그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분량의 작품을 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는 없다. 대표적인 작품을 몇 개 뽑아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학생들이 관련 작품을 보았을 때도 관심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시 이해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5) 다른 매체 사용 수업 모색 예

① 시 속의 장면 그리기

이 경우 하나의 장면으로 시를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람에 흔들리는 풀의 전체 풍경을 그린다고든지 아니며 사전에 이 시와 어울릴 만한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오게 하고 어떤 점에서 어울리는지를 말해 보는 것이다. 이때 단순히 풀 그림만이 아니라 추상화라든지 이미지가 어울리는 작품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춤으로 표현하기

이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풀의 이미지를 반에서 춤을 잘 추는 학생이 있을 경우 춤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다. 이것은 딱딱하기 쉬운 시수업을 좀더 흥미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낭송 Tape 만들기

시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역시 협동 학습을 통해 과제를 제시하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때 ‘시 낭송 테이프 제작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작품 제목, 작가소개, 감상 핵심, 분단원 성명, 배경음악, 분담 내역과 준비물, 낭송자, 제작 과정의 재미있는 일화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개인별 감상문을 뒤에 첨부한 과제물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교사는 演行者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⁷⁵⁾ 즉 교사는 학생들이 시를 즐겨

75) Roger Shattuck-Viva Voce. 『비평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역(서울: 정음사, 1984), p.134.

운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풀」 역시 기존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교수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평가

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졌는지를 학습 목표와 연관지어 평가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지적 평가와 정의적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평가가 될 것이다.

① 인지적 평가

-1연의 ‘풀이 눕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 풀의 나약한 모습

→ 바람에 의한 풀의 최초의 움직임

-시체가 바뀌는 연은 몇 년부터인가?

→2연

-수동적인 이미지의 ‘풀’이 능동적이고 강한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연인가?

→2연 2행

- 이 시에서 대립쌍을 이루는 시어들은 어떤 것이 있나?

→풀/바람, 눕는다/일어난다, 울다/웃는다

→눕는다/일어난다, 울다/웃는다

-이 시에서 반복되는 시어는 무엇이며, 시어의 반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 ‘풀이 눕는다’, ‘울었다’, ‘바람보다’, ‘일어난다’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이 시를 모방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풀’의 의미는?

→ 민중

-‘동풍’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부정한 세력, 억압세력

→풀의 생태학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조력자

② 정의적 평가

-이 시를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나?

-이 시의 풀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2) 교수-학습 모형 2

다음에서는 「풀」의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해 「풀」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1)시 작품의 전체적 접근

①소모둠 구성

교수-학습 활동을 들어가기 전에 모둠을 구성한다. 모둠의 구성은 학습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데 적합하다. 모둠 구성 방식이 학습 독자의 감상력 신장이라는 시 교육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②제목 ‘풀’에서 연상되는 느낌 발표하기

이는 텍스트를 읽기 전 텍스트 내용과 무관하게 학습자의 자유로운 연상 내용이나 느낌, 체험 등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 단계는 스키마를 활성화하여 학습독자가 접하게 될 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이다. 이때 자유로운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교사는 필요에 따라 ‘명사로 대답하라(사물)’ 또는 ‘형용사로 대답하라(느낌)’는 식의 지시를 통해 학습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제한하는 것도 좋다.

또한 ‘풀’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하여 떠오르는 것들을 모둠별로 정리한다. 예를 들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연약하다’, ‘한 해 밖에 살지 못한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등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③시 낭독 및 묵독하기

모든 독서의 출발은 자세히 읽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낭독은 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특히 이 시의 경우 대립되는 시어와 이미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립되는 시어와 이미지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리듬에 맞춰 낭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이 작품의 의미를 깨닫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④시 전체의 느낌, 분위기를 표현하기

시 텍스트 전체의 통일성과 주된 정서를 감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처음 읽은 후에 즉시 실행해야 한다. 많은 시간을 허락하면 자기 느낌을 무의식적으로

로 미화하거나 과장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간을 짧게 주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첫느낌에 따라 전체를 감상하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느낌이나 분위기를 포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현상의 제한을 둘 수 있는데, 그 첫째 방법은 형용사로 표현하기이다. 이는 총체적 인상을 한두 마디로 표현해 보는 방법인데,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이시의 경우 ‘풀이 눕는’ 행위를 좌절로 생각해서 이점에 초점을 맞춘 학습자의 경우 “어둡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풀이 눕고 일어나’ 행위의 반복에 초점을 맞춘 경우 그 속에서 “희망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또는 단순히 풀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춘 화자는 “역동적이다”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⑤모듬 구성원간의 느낌 교환하기

소그룹 구성원간에 활발한 대화를 통해 텍스트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과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며 또한 구성원간의 정서적 감흥의 교류와 진솔한 내면을 토로할 수 있다.

(2)시 작품의 부분적 접근

① 이 작품의 시적 화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단순히 ‘풀’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풀’을 관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서정적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 학습자가 자신을 투입시켜 봄으로써 서정적 자아의 생각과 정서와 자신의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②시의 맥락 찾기와 내용 파악하기

<개별 모듬 접근>

- 이 시의 소재는 무엇이나요?
- 이 시에서 대립되는 이미지로 사용된 시어들은 어떤 것이 있나?
- 이 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시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 시를 낭독할 때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 이렇게 속도감을 줌으로서 얻어지는 결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풀과 바람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 이 시에서 사용된 비유법을 알아보고 이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공동접근>

- 이 시지는 반복과 대립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이 시의 ‘풀이 눕는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 이 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 이 시를 현재의 자신의 삶과 비교할 때,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 이 시가 창작된 당시의 사회상과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려운 시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는 한 방법으로 소그룹 활동이 중심이 되며,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 내용의 흐름과 짜임새를 이해하는 단계이다.⁷⁶⁾ 이 과정이 수업의 중심 부분을 이루게 된다. 내용 이해는 소그룹 활동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학생들 수준에서 접근할만한 문제의 대부분이 토의 과정을 통해 해결될

76) 문영희, 시 교육의 수용론적 방법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2001), pp.88~89.

수 있다. 학생들이 놓치는 내용이나 난해한 내용은 교사가 질문을 던져 공동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3)시 감상의 종합적 재구성

① 심미적 시 감상의 구체화 활동

이 단계에서는 시를 개인적으로 감상한 후 그 시를 심미적으로 내면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법을 모색한다. 소그룹 내에서 소그룹 구성원간에 친밀하고 개방적인 상호 긍정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시 텍스트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인정해 주는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시 작품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아이디어, 작품의 수용과정을 솔직히 표출하게 하여, 이것을 듣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 그들 동료로부터 시 감상과 아이디어를 개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를 음미하며 분위기와 감정을 살려 낭송하기

시를 음미한다는 것은 시 텍스트에서 받은 감동을 되살린다는 뜻이 되며, 시적 자아의 시적 상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다는 것이다.

(4)내면화 단계

- 자신과 관련지어 시에 대한 종합적인 감상을 발표한다
- 제재, 주제면에서 유사한 작품을 감상한다. 또한 어떤 점이 유사한지 말해 본다.
- 모방시를 써 본다. 풀의 이미지와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여 모방시를 써본다.
- 이 시를 춤으로 표현해 본다.
- 리듬과 시의 분위기에 맞춰 시 낭송 tape를 만든다

(5)평가단계

이 단계에서는 선택형이나 단답형의 평가방식보다는 반응의 총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결과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풀」의 의미 도출 과정에 해당하는 토의 내용들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이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에 덧붙여 낭송tape를 만들도록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것을 통해 모둠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지금까지 「풀」을 교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존의 「풀」의 교수-학습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모방론적 관점에 의존하여 도식화된 해석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수업이 이뤄졌다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데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미학적 측면에서의 학습 내용을 보강했으며, 또한 학생중심의 수업을 위해 모둠별 교수-학습 방법을 작성하여 보았다.

V. 결 론

「풀」은 1967년 발표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김수영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그의 작품 중 가장 문학적 완성도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한다는 것은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풀」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현행 7차 문학교과서 교수-학습 현황 고찰, 「풀」의 학습 내용 모색, 「풀」의 교수-학습 모형 모색이 그것이다.

우선, 현행 7차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의 경우 첫 번째로 이 작품을 지나치게 당시 사회상과 관련지어 교수-학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풀’을 단순히 ‘민중’ 해석하여 설명하고 있어 지나치게 도식화된 교수-학습이 이뤄질 소지가 있었다. 학습활동의 분석을 통해 얻은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풀’과 ‘바람’의 상징적 의미를 학습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어 작품의 미적 구조에 대한 탐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업이 입체적이고 다원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착안하여 「풀」의 해석의 두가지 관점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교수-학습 수업 모형을 작성해 보았다.

우선 내용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졌다. 즉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 가지 관점에 치우쳐 설명할 경우 작품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방론적 관점에 의한 작품 해석의 경우, 이 시를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지어 살

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풀」은 4.19 이후 시대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서 ‘풀’의 의미가 단순한 ‘민중’의 개념에서 점차 확대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구조론적 관점에서는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 시의 구조, 리듬 상의 특징, 수사법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경우 자유로운 주체로서의 ‘풀’ 또는 주체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시의 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 구조, 수사법의 사용, 그리고 ‘풀’과 ‘바람’의 의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이 시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이 시는 시어의 대립과 반복을 통해서 주술성을 형성할 뿐 아니라 리듬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리듬은 역동하는 ‘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람보다 빨리 눕고 일어난다’는 모순을 모순으로 느끼지 않게 하는 주술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이 시에서 수사법 상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인법의 사용은 풀이 주체적인 존재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풀’과 ‘바람’의 의미와 상징에서는 모방론적 관점을 넘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생태학적 한계를 뛰어 넘는 자유로운 주체를 상징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 장에서는 위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교수-학습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2개의 모형을 구안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방론적 관점과 구조론적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학습 모형이었고 두 번째는 7차 국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학생중심 교수-학습에 따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교수-학습법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작품의 미적 구조에 대한 교수-학습 부분을 강화했다. 또한 두 번째 모형에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작품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상, 본 논문은 「풀」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풀」에 역점을 두어 작품을 해석하고 효과적인 교수방법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김수영의 다른 작품과의 상호 텍스트적 구조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 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수업모형이 실제 수업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연구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과제로 남겨 놓는다.

< 참고 문헌 >

1. 국내 논저

1) 기초 자료

- 김수영.(1981). 『김수영 전집1-시』. 서울 : 민음사.
_____.(1981). 『김수영 전집2-산문』. 서울 : 민음사.
김병국 외.(2002).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지도서(하)』. 서울 : 한국교육미디어.
김창원 외.(2002). 『고등학교 문학(하)』. 서울 : 민중서림.
_____.(2002).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서울 : 민중서림.
박갑수 외.(2002). 『고등학교 문학 (상)』. 서울 : 지학사.
박경신 외.(2002). 『고등학교 문학(하)』. 서울 : 금성출판사.
_____. (2002). 『고등학교 문학 교사용 지도서(하)』. 서울 : 금성출판사.
황동규 편.(1983). 『김수영 전집 별권-김수영의 문학』. 서울 : 민음사.

2) 단행본

- 강웅식.(2004). 『해석의 갈등-김수영 풀 다시 읽기』. 서울 : 청동.
_____.(2003). 『텍스트에서 경험으로』. 서울 : 새미.
구인환.(1998). 『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서울:삼지원
김은전 외.(1975). 『국어과 교육』.서울: 한국능력개발사
김재복.(1984). 『수업 전략』. 서울:배영사신서
김준오.(1993). 『시론』. 서울 : 삼지원.
김창원.(1995). 『시교육과 텍스트 해석』,서울. 서울 : 서울대 출판부.
김춘수·박진환.(1998) 『한국의 문체시·명시 해설과 감상』. 서울: 자유지성사
김 현.(1973). 김수영 혹은 소시민의 자기확인과의 향의. 『한국문학사』. 서울 : 민음사.
김현승.(1975). 『한국현대시해석』. 서울 : 관동출판사.
김혜순 외.(2000). 『김수영 다시 읽기』. 서울 : 프레스21.
노 철.(2002). 『시교육 방법과 실제』. 서울 : 보고사.
윤석산.(1996). 『현대시학』. 서울: 새미.

- 윤여탁.(2001). 『시와 함께 배우는 시론』. 서울 : 태학사.
 양왕용.(1997). 『현대시교육론』. 서울 : 삼지원.
 이남호.(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서울 : 현대문학.
 장도준.(2003). 『한국현대시교육론』. 서울 : 국학자료원.
 조동일.(1982).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서울: 한길사.
 황동규(1976). 『사랑의 뿌리』. 서울 : 문학과 지성사.
 황정산 외.(2003). 『김수영』 서울 : 새미.

3)소논문

- 강웅식.(1986). 「김수영의 시 「풀」 연구」. 『경희어문학』 no. 7.
 권희돈.(1990). 「시의 빈자리-김수영의 「풀」을 예로 하여」, 『청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논문』 no.9집.
 김종철.(1973). 「시적 진리와 시적 성취」. 『문학과 사상』 9월호.
 박수연.(1999). 「「꽃잎」, 언어적 구심력과 사회적 원심력」. 『문학과 사회』,
 4월호.
 성민엽.(2000). 「김수영의 「풀」과 『논어』」. 『서정시학』. 봄호
 송명희.(1980). 「김수영론 인간상실과 그 회복에 대하여」. 『현대문학』.8월호
 신경림.(1998). 「심경림의 시인의 찾아서」. 『우리교육』.10월호.
 양희철.(2001). 「김수영의 시 「풀」의 해석과 평가」. 『국제문화 연구』 no.19.
 염무웅.(1976). 「김수영론」 『창작과 비평』. 봄호.
 정재서.(1994). 「다시 서는 동아시아문학:중국 소설의 기원을 찾아서」. 『상상』
 9월호
 최동호.(1998). 「김수영의 문학사적 위치」. 『작가연구』. no.5.
 최현식.(2001). 「꽃의 의미-김수영 시에서의 미와 진리」. 『포에지』 no.16
 황동규.(1974). 「절망 후의 소리 : 김수영의 「꽃잎」」. 『심상』 4월.

4)학위논문

- 강연호.(1995). 「김수영 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웅식.(1984). 「김수영의 시 「풀」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경규진.(1993). 「반응중심 문학교육 방법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오영.(1992). 「김수영론」.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2000). 「현대시 이미지 교육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태진.(1996). 「김수영 시의 환유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희용.(2002). 「김수영시의 은유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이건제.(1990). 「김수영시의 변모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이석우.(1994). 「김수영의 시 「풀」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혜승.(2000). 「김수영 시 연구 : 텍스트 의미와 생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송숙영.(2001). 「시의 운율 지도 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민정.(1999).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종민.(2001). 「시교육의 방법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황경해.(2004). 「이미지 중심의 현대시 교육방법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 국외 논저

- Joseph Childers.(2003).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황종연 역. 서울: 문학동네
- Raymond J. Rodrigues.(2001).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박인기 역. 서울:박이정.
- Roger Shattuck·Viva Voce.(1984) 『비평이란 무엇인가.』 최상규 역. 서울 : 정음사.
- M.H. Abrams . (1985). 『문학용어비평사전』. 최상규역. 서울:대방출판사.

ABSTRACT

Effective teachings way study of 「grass」 by Kim Su-Yeong

Bae, Min-Soo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aims to find effective education method of 「grass」. Kim, Su-Yeong is poet who cause big effect to Korean Bachelor of Arts by creation soul that is fierce through creative activity of 20 intervals.

Therefore, it has large meaning that study 「grass」 that is his last work. Moreover, because this work contains various meaning in easy poetic language and simple structure, it is evaluated work high. But, previous 「grass」 taught and is studied emphasized that he is engagement poet and is been study measure and connects with social image.

This work analysis is retaining problem to be achieved as 'teaching and learning' that is stiffened at the slightest slip. Therefore, this study was going to interpret a work in more various viewpoints. Therefore, in this study, analyzed work to use structuralism criticism with mimetic criticism's work analysis. Also, in this study, based on this and studied a 'teachings - studying' way effectively. First, this

study analyzed studying target of this work, studying contents and busywork that load in the seventh high school literature text book.

When see through this, studying target is explaining regarding phase of life overly and terminology that analyze poetry was explained ambiguously. Also, education contents are obeying the existing schematized interpretation

Therefore, I studied mimetic criticism and structuralism criticism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First of all, this study looked into the mimetic criticism which was a work interpretation viewpoint of The seventh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 Through this, This study indicated problem of this work analysis that use mimetic criticism. Also, I used structuralism criticism's work analysis to cope this problem.

A concrete study way is as follows. That is, This study discussed structure of poetic language, characteristics on a rhythm, representation of a style. Also, `grass' and `wind' studied meaning to symbolize.

Finally, this study did pattern of 'teaching and learning ' of 「grass」 having insight with above analysis.

First of all, this study looked into the existing 'teachings - education ' model for this and This could arrange with two matrixes again. First, this study made model that can do effectively 'teaching and learning ' of structuralism criticism and mimetic criticism

Also, the seventh high school literature text book taking a serious

view 'teaching and learning ' form of the student center. Therefore, in this study, present, made 'teaching and learning ' model of the practical use student center in education spot. 'teaching and learning ' method of 「grass」 has been analyzed connecting with social circumstance overly.

Finally, the literature education about work own aesthetic side was insufficient Study method of existent 「grass」 lacked process that learner appreciates and internalizes contents. Therefore, an learner has possibility to study schematized contents. Therefore, this study made a various study to improve this.